

17게 크는 우리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11월호 첫발령 92.5.25. 통권 25호 발행인 최현숙

주한/외/국/사/학/아/소

우리네 아이들

94.1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4.11.15

우리네 아이들

94. 11월호

<통권 25호>

짜 임 새



<표지사진 설명>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들의 삶은 밝고 힘차다.
어머니 큰잔치의 자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밝혀준
인천 교사노래단의 어울림
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 일하며 생각하며 / 2

서울시 민보련 창립을 앞두고

박정혜

■ 기획 1 / 4

가사노동논쟁이 보육에 주는 함의

정책연구부

■ 기획 2 / 8

부모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김실이

■ 기획 3 / 13

영아의 건강제조

이예용

■ 특집 / 27

가정내 응급처치

김철환

■ 좋은 그림책 소개 / 34

■ 화보 / 36

꿈을 갖고 씩씩쑹.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편집부

■ 긴급입수 1 / 43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민주당)안

■ 긴급입수 2 / 47

민자당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변경안

■ 작은 기획 이어가기 / 51

북녘의 전래 놀이

변미양

■ 시사말뚫이 / 55

이젠 외양간 좀 고칠시다

편집부

■ 글마당 / 58

딱여초별곡

어린이서평방

우리들의 묵소리

오연환, 김재경

■ 딱아게 풍황 / 83

■ 소식과 소식 / 85

■ 벼룩시장 / 87

■ 편집부에서 / 88

■ 일하며 생각하며

서울시 민보련 창립을 앞두고

박정혜 / 성동구 도래도어린이집 원장,
서울시 민보련 준비위원장

한결 나아진 환경과 관심 속에 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여성문제로 고민하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땀흘린 댓가로 인해 이제 우리는 일하는 어머니들의 고충과, 나아가서는 여성문제(취업)에 관한 사항을 최일선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맘놓고 일하며, 맡겨진 아이들에게는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통하여 전인교육의 기초가 되는 말김과 배움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정당한 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에게 보다는 국공립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펴므로 인해 현재 2,000여개소가(가정 2,415개소) 되는 민간보육시설은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 보육아동대상중 50-70%는 민간(가정 포함)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로 해서 그 문제는 더욱 시급한 상태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결성은 정부정책의 위탁업무에 걸맞는 처우를 받기 위한 발돋움입니다.

- 정부의 보육정책은 민간에게 보다는 국공립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펴므로 인해 현재 2,000여개소가(가정 2,415개소) 되는 민간보육시설은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내든 동등한 보육료와 좋은 시설에 보육되어져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 멀고 험한 긴 길을 우리 민간이 뚫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성실히 돌볼과 동시에 연령에 맞는 교육은 필히 병행되어야 진정한 보육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지자체 실시에 따른 우리 민보련의 역할은 보육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마땅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원만한 국가경제의 바탕은 가정이므로 지방자치 속에서 보육영역을 넓혀가야 안심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22개구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이것을 결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합회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고충과 앞으로 바르게 지향되어야 할 전반적인 것에 대해 미약하나마 청구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작은 소망을 담은 목소리를 모은 메가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맞물려 맡겨진 의무를 다하고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여 좀 더 나은 보육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

협력하여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가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약 1

가사노동논쟁이 보육에 주는 함의

정책연구부

1. 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여성문제에 대해 연구했던 여러 외국학자 및 이론가들의 '보육관'을 살펴본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보육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정책연구부에서는 여러 학자 및 이론가의 글들을 통해 크게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를 보고자 하였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쟁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를 보기 앞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세 여성학자의 여성억압 및 가사노동에 관한 견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 여성학자와 그들의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논제와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 * 마르타 지메네츠, '여성억압에 대한 엥겔스의 견해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요소와 비마르크스주의적 요소'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삶』, 천지.
- * 모이라 마코나키, '엥겔스, 성별분업, 가족', 『여성의 노동, 여성의 삶』, 천지.
- * 안겔리나 쾨르겔,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노동', 『사적 유물론과 여성해방』, 중원문화.

(1) 지메네츠-엥겔스의 비마르크스주의적 요소 밝히기

지메네츠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남성 지배의 독립적 기원 즉 성억압의 독립적 기원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엥겔스의 원전 속에 비마르크스주의적 요소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그의 반론의 요지는 엥겔스가 생산양식과 인간재생산양식 사이의 접합문제를 사적 유물론의 용어로 정식화하지 않고 모건의 전복에 대해 남성음모설이라는 관념론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양식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얼버무리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가정과 남녀관계를 그 이전사회에서도 똑같이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의 억압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억압과 억압의 형태는 계급에 따라 .그리고 계급 내에서도 다양하므로 특정 역사시대의 생산양식과 그 속에서 그시대의 결혼과 가족형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사이의 내적 연관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생산양식이 인간과 사회의 재생산을 결정하며 성 불평등의 기초는 일개 개인이나 일개 사회계층의 의도나 동기에서가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인간 삶의 재생산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 오류의 극복을 '방법론'의 전환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구성체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역사상에 나타나게 된 시간적 질서(연대적인)가 아니라 주어진 생산양식 속에서 생산의 두측면인 생산과 재생산의 결합을 특징짓는 일련의 역사적 조건(구조, 과정 모순)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2) 마코나키-가족의 역사와 여성의 지위

마코나키 논문의 목적은 가족의 역사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엥겔스의 테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그의 개념 체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엥겔스가 가족내의 남녀관계에 대해 자연주의적 설명방식을 갖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마코나키는 엥겔스가 성별 노동분업의 존재를 '사회적'이 아니라 '원초적'분업이라고 미리 전제하고 이론 전개에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이를 남녀관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남성은 생계를 확보하고 여성은 가사에 종사하는 것을 '원초적'인 것으로, 생물학적 재생산에 있어서의 성별분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따라서 어떤 가족형태에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여성이라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란 여성의 자연적인 노동영역이 되어 역사를 통틀어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온 무시간적이고 분석될 필요가 없는 활동으로 된다는 것이다.

(3) 쾨르겔 -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노동

쾨르겔은 본격적인 가사노동논쟁에 대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나선다. 크게 두가지 문제를 놓고 살펴본다. 첫째,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인가라는 문제와 둘째, 가사노동은 독립적인 생산방식인가라는 문제이다.

첫째문제는 달리 말하면 가사노동이 생산적이나 비생산적이나라는 물음과 대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가사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고 하면서 지 불되지 않는 주부의 노동도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 쾨르겔은 가사노동이 자본가에게 이윤을 주지만 이는 가사노동이 잉여노동을 생산함으로써가 아니라 남성노동력의 가치를 낮게 해주고(재생산비용의 낮춤) 여성의 산업에비군의 존재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정해질 때 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등 자본이 가부장적 구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사노동이 사용가치를 만드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사회적 사

“죄르겔은 가사노동의 정당한 근거는
경제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다고 말하며 가사노동이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며, 여성이 자식의 '양육'을 담당하고, 여성들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성격, 사회의 자본주의적 및 가부장적
성격의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용가치(상품)를 생산하지는 않으므로 유용한 인간노동의 산물이지만 비생산적 노동으로서 가치를 첨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두번째문제는 가사노동이 독립적인 생산방식인가라는 것인데, 이 물음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나누어 가사노동이 '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결과라는 설명을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자본이 모든 가치관계나 물품거래에서 비자본주의적 생산형태에 종속되어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죄르겔은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짓는데,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끌어대고 있는 근거인 로자 룩셈부르크의 견해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나 전자본주의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견해에 대해 오히려 그것은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며 초과이윤의 원천은 제3세계 생산형태의 비자본주의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것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지배형태로의 종속이며, 무정부적, 가부장적 제관계에 내재하는 자족적 성향의 이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보는 견해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착취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포함하며 임노동과 자본간의 계급모순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에도 '계급모순'이 있다고 가정하게 하는 오류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죄르겔은 가사노동의 정당한 근거는 경제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다고 말하며 가사노동이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며, 여성이 자식의 '양육'을 담당하고, 여성들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성격, 사회의 자본주의적 및 가부장적 성격의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주장한다. “근본적인 사회관계는 여전히 임노동과 자본과의 관계이며, 잉여가치가 여성들의 자연적인 특성이나 또는 성별분업을 토대로 여성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통해서 남성들과 여성들로부터 짜내어진다. 이때 이 임노동과 자본 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가부장적으로 구조지어져 있다.”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가부장제의 경제적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결코 타파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3. 평가

위 3개의 논문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가사노동의 논쟁에 관한

것이다. 이들 논문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모두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여 엥겔스 다시 보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데 그 주제와 견해에서 각각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해석의 한계를 보이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성별분업과 여성억압의 관계나 이의 구체적인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방법론상의 문제를 나름대로 제기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주제 자체의 중요함과 방대함에 눌려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스텝은 트여놓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엥겔스는 왜 성별분업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권력관계의 형태를 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던 마코나키도 결국 이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다. 엥겔스는 생산의 영역에 분석상의 우위를 두어서 가족은 역사발전에서 수동적인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마코나키의 기본적인 견해는 지메네츠와는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사물의 상반된 곳을 본다는 뉘앙스를 풍겨, 같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 속에서도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접합과 해석이 얼마나 분분한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관한 논쟁은 여성노동을 전체 생산 및 재생산의 메카니즘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 죄르겔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왜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지, 또 그것이 행해지는 방식은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사회의 정치적 성격, 사회의 자본주의적 및 가부장적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등 아동양육을 바라보는데 있어 커다란 함의를 갖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의 바람직한 형태와 그 실현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보육의 문제는 '아동의 문제'만도 아닌, '여성의 노동권 확보의 문제'만도 아닌 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보육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기하고 있다.

■ 기획 2

부모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김실이 / 진달래동산어린이집 교사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하면서 이전의 전통적인 양육방식들이 부정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너무나 다양한 유아교육 이론이 쏟아져 나와 부모들을 오히려 당황하게 한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인해 아이들의 양육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 부모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만을 받는 존재일까?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포함한 그 사회 전체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 아이는 사회가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그간 우리가 해왔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부모교육을 점검해본다.

1. 교사들의 부모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좋은 부모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 교사간의 꾸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모교사간의 일상적인 대화가 많은 우리의 방침은 부모교육의 좋은 토양이다. 그러나 '비영리'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자칫 시혜적인 태도를 갖지는 않았는지, '교사가 이만큼 희생하니 이런 이런 행사엔 꼭 참여하시오'하는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지, 아이를 말기고 말는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평등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바라는 민주적인 태도는 어떤 강의를 듣고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탁아소에서의 여러 인간관계속에서 훈련되고 터득되는 것이다.

자모와 교사간에 얼마나 질적인 대화가 오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봐야 한다.

친하다는 이유로 교사 자모간에 함부로 대하고 마음 상하는 일은 없는지, 저녁시간에 대화가 충분히 오고 갈 만한 탁아소의 분위기인지, 이야기가 되더라도 피상적이거나 쓸데없는 수다로만 흐르는지를 살펴보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려면 우선은 교사가 아이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판단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야기 속에서 엄마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 교사들끼리 일상적으로 자모와 아이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많아서 혼선을 빚을 경우 '어떤 엄마에게 누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자'고 미리 의견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2. 부모교육의 목표

그간에 우리가 활동을 해오면서 암묵적인 것이든 명문화된 것이든 부모교육을 하는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활동과 우리 사업의 목표가 심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의 행사 참여를 무리하게 요구받았고, 이는 부모들의 대상화와 낮은 참여를 가져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의욕을 잃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자모사업이 아동교육에 관해 합의하는 부분과 부모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적으로 단련되는 부분으로 양분되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부모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내야 할까?

자모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활동을 하려면 우리의 사업은 철저히 우리 사업다워야 한다. 즉 탁아운동의 독자적인 내용인 '아동의 올바른 보육'이 우리 사업의 중심목표로 서야 한다. 이는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잘 봐주고 부모들과 우리 교육을 합의해낸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부모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넓은 의미이다.

정리해보면 우리 부모교육의 목표는

1. 공동양육을 해내는 것
2. 좋은 부모가 되도록 돕는 것
3. 사회적, 물리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내는 것이다.

3. 부모교육의 내용

우리들은 그동안 일상적인 대화, 특별면담, 회지, 가정방문, 부모교실 등의 강좌, 소모임, 자모회, 임원회, 그룹토의, 탁아소 일상예의 부모참여, 지역활동, 어머니 대회 참여 등의 수많은 방법으로 꾸준히 부모교육을 해왔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여지듯 폭이 넓고 방대하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다기 보다는 부모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서 한 가지 내용이라도 더 심화시키고 부모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말했던 부모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마련해내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놀이터 개선, 국민학교 앞 차량통제, 수돗물 불소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먹거리를 알아본 후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식품 구입하기, 폐품으로 교구교재 만들기...)

★ 부모교육의 내용 ★

※ 탁아소에 대한 이해

- 우리 탁아소에 대한 이해(역사, 설립목적, 운영...)
- 공동양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
- 탁아소의 규율과 규칙에 대한 이해
- 우리 교육목표에 대한 이해(공동체 교육, 성평등교육...)

※ 아동권

- 아동과 놀이에 대한 이해
- 아동중심

※ 부모 자녀관계의 중요성

- 양육태도
- 상과 벌
- 자녀와의 대화방법

※ 유아발달과 부모의 지도방법

- 신체발달
- 언어발달(동화에 대한 이해...)
- 인지발달(교구제작, 상호작용시범)
- 사회정서발달(생활습관들이기...)

※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 보건위생(환경, 좋은 먹거리, 유아영양, 치아관리, 여성건강...)
- 부부관계

4. 자모회

꾸준히 부모교육을 해오고, 높은 참여율을 가진 자모회를 운영해온 것은 우리 지탁연 회원 어린이집만이 갖는 커다란 장점이고 특징이다.

자모회는 자모들이 탁아소의 운영(재정,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집약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이런 자모회를 더 활기있게 하려면 자모회에 있어서 교사의 비중을 줄이고 자모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모회에 참가하는 교사 수를 줄이고 발언도 줄이며, 자모들 사이에서 좀 더 주도적인 그룹이 생기는 것이 필요한데, 편 집부의 강화나 임원회의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긴 자모회의 시간을 줄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보고시간(재정, 월교육계획)을 줄이며 교육계획안에 자모회 안건을 미리 알리는 등의 기술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자모회날 되도록이면 아빠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자부들의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집중도를 높여내는 것도 좋다.

임원들이 자모회일지를 쓰도록 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필요하며, 교사들이 자 모회 이후에 정확히 평가하고, 긴장하여 자모회 준비를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예) 안산 전달래동산 '94 하반기 자모회에서의 부모교육 내용

- 7월 - 유아치아관리(아이들 치아 검진, 군포치과의사가 강의)
- 9월 - 동화에 대한 이해, 좋은 동화책 고르는 법(교사가 강의)
탁아소에서 하는 동화구연 방법의 소개
'빨강, 파랑, 노랑 도깨비'막대동화 시연
- 10월 - 어머니큰잔치 준비, 반별 이야기 나누기
- 11월 - 벌, 체벌에 대한 반별 이야기 나누기
- 12월 - 가족망년회 준비

5. 가정방문

그간 우리가 해온 가정방문의 종류는 대강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학시의 가정방 문, 연2회 정도의 정기 가정방문,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의 가정방문이 그것이다.

입학시의 가정방문은 새로 들어오는 아이가 쉽게 교사에게 적응하고, 교사가 새로운 아이에 대해 심도있게 알며(집에서의 태도, 그간 자라온 이야기, 부모와의 관계 관찰), 부모에게 우리 탁아소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부모가 부담없이 하는 시간에 교사1인이 걸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정기 가정방문은 한 집에 교사전원이 방문하여 여러 분량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 향이 있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좋기는 하나 교사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이야 기가 집중되지 못하며 집마다 편차가 심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보완하기 위해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교사1-2인이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방문한 후 설문지에 기록해두는 방법을 쓰면 좋다. (예-전달래동산의 94하반기 가정방문의 주제 -통합후에 전달래에 대한 느낌, 바라는 점, 엄마들의 직장이야기)

특히 부모가 가정방문 기간에 일이 있거나 방문을 꺼리는 경우에는 탁아소나 다른 장소(차집)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가정방문을 해본 교사라면 방문 이후에 얼마나 그 아이가 눈에 잘 들어 오고, 그 엄 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자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지 알 것이다. 가정 방문은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일이다.

6. 부모교실

부모교실은 특별한 주제로 일정기간 동안 외부강사나 내부강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동교육에 대해 집약적으로 하고 싶다면 아동과 놀이, 공동육아 등의 주제를 가질 수 있고 가정생활 중심이면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 부부간의 대화법 훈련 등을 주제로 할 수 있다.

부모교실의 특징은 그 자체로 부모교육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동육아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꾸준히 이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이 굉장히 힘겨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제를 잡을 때도 충분한 요구의 수렴이 있어야 하고, 행해지는 횟수도 2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나 장소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의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직접 강의를 들어본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 섭외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부모교실은 지역 전체에 열어두고 하는 것, 민간보육시설들이 연합으로 하는 것 등 좀더 확산하기 위한 고민도 요구된다.

7. 뱃음말

아이를 돈을 주고 팔고 팔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운다'라고 할 때 부모교육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어떤 아이가 우리 탁아소에 와서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 졸업했다면 그것은 일정정도 부모와 교사와의 긴밀한 관계와 부모의 좋은 변화 덕분이다.

더구나 아이를 잘 키운다는 의미를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때 부모교육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되새기면, 여러가지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간 해왔던 부모교육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부모와 교사간의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간 해온 방식들을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 기획

영아의 건강 체조

이예용 / 새터어린이집 교사

이 자료는 이예용씨의 준비로 10월 영아탁아소모임에서 교육한 내용이다. 몇가지 책자와 어린이집에서 해오던 내용을 모아 정리한 것이며, 다른 영아 탁아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아기 체조

1. 아기 체조의 이해

체조는 근육이나 심폐기능을 발달시키는 능동적인 형식의 행위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을 발휘하는 운동이다.

아기 체조는 아기의 빠른 신체발달을 촉진시키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고 아기가 받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기와의 신체접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촉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기는 생각하는 능력 이전에 느낌을 먼저 갖는다. 그래서 짚은 신체접촉은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다. 체조는 아기를 돌봐주는 어른이 인위적으로 이를 더 촉진시켜주는 좋은 수단이다.

2. 아기 체조의 준비

일과중 기저귀 갈아줄 때나, 아기가 활동하기 편한 옷(내복)을 입히고 바닥엔 커다란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주위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식사한 후 30분은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고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를 택한다. 심심할 때 해줘도 좋다.

음악은 운동의 열쇠가 되고 있는 "리듬"을 제공해주므로 체조할 때 들려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기에게는 체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이다.

체조를 시작했으면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효과는 단 한번의 실시로 나타나지 않고 반복해서 해주어야 나타난다.

★ **아기 체조시 지켜야 할 손과 팔, 다리를 지탱시키는 기본법칙 3가지**

- 이 법칙은 해주는 사람도 편하고, 아기도 편안해 한다.



가) **아기 손을 잡는 방법과 그 지탱방법**

옆의 그림과 같이 손을 잡는 방법이 아기의 신체에 무리가 없다. 아기에게 엄지를 쥐게 하고 검지 손가락을 아기의 손목에 걸쳐 두는 기분으로 잡는다.



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지탱하는 방법**

아기의 발목을 검지와 중지로 쥐고 아기가 발을 누리는 듯 하면 풀어질 정도의 힘으로 지탱시켜야 한다.



다) **아기의 무릎을 잡고 지탱하는 방법**

아기에게는 무릎관절 전면도 중요하지만 오금을 받쳐 들어올려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과 같이 아기의 무릎 뒷면(오금)을 교사의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받치는 느낌으로 쥐어야 한다.

3. 개월 수에 따른 체조

★ **아기의 신체적 발달 특징**

2개월 - 신생아는 태어나기까지의 오랜 기간동안 오그라든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뻗어주거나 움직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3개월~4개월 - 몸이나 머리를 조금씩 가눌 수 있다. 차츰 주위의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게 되므로 새로운 동작을 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체조가 좋다. 팔운동을 좋아하고 이 시기의 체조는 유아의 흥미를 이용해 운동기능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5개월~8개월 - 이 시기의 아기는 여러가지 일에 흥미가 넓어져 뒤집고 기어다니고

앉는 기능을 몸에 익혀나간다. 또 눈으로 좇아서 손을 뻗거나 또는 손과 눈의 협조라는, 감각과 운동이 협조하는 동작을 볼 수 있다.

9개월~12개월 - 적극적으로 자기 주위를 탐험하려고 하고 걷기 이전으로 기어다니기와 물건을 잡고 건너기를 활발히 할 시기이므로 전신의 힘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체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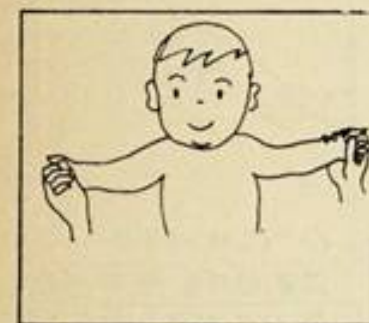
1) **생후 12개월까지**

① **팔운동**

목적: 아기의 팔과 윗몸을 펴서 긴장을 풀어주고, 팔과 윗몸의 근육발달과 유연성을 돕는다.

◇ **두팔 펴안기**

㉔



㉕



그림 ㉔와 같이 팔을 넓게 벌려 주고 그림 ㉕처럼 아기의 두 팔을 가슴 위로 벌갈아 가며 교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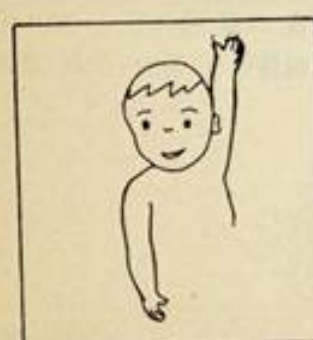
㉖



◇ **가위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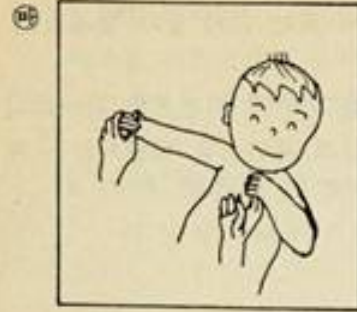
그림 ㉔와 같은 자세에서 그림 ㉖와 같이 두 팔을 가위모양으로 교차시킨다. 팔을 바꿔서 또 해준다.

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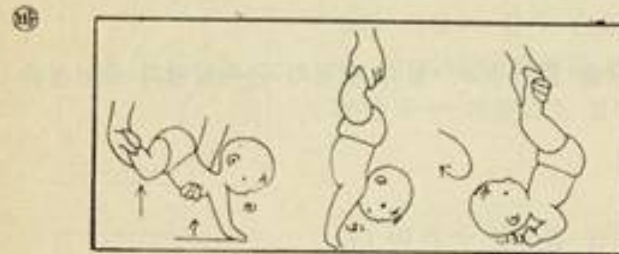
◇ **몸 펴주기**

그림 ㉔와 같은 자세에서 그림 ㉗처럼 아기의 한쪽 팔을 위로 올려 아기의 머리에 붙이는 모양으로 꼭 펴주고 다른 쪽 팔은 내려 허리에 붙이듯이 한다. 양쪽 팔을 번갈아 해준다.



◇ 가슴 펴주기

그림 ㉔와 같은 자세에서 그림 ㉕와 같이 한쪽 팔을 자연스럽게 몸의 옆쪽으로 펴주고 다른쪽의 팔은 가슴위에 놓는다. 양쪽 팔을 번갈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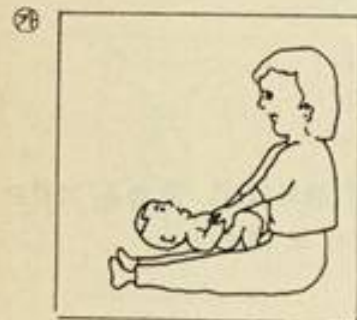


◇ 물구나무 서기

그림 ㉖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물구나무 서기 자세를 취했다가 되돌아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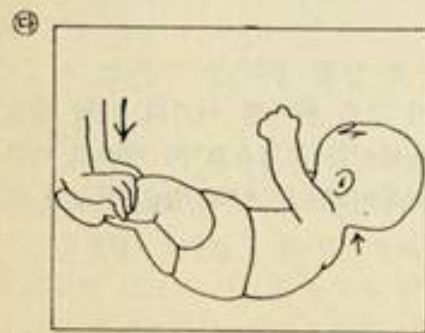
② 몸통운동

목적: 몸의 근육발달을 돕는다.



◇ 일으켜 세우기

그림 ㉗처럼 쪽 편 어른의 두 다리 위에 아기를 눕히고 그림 ㉘와 같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앉은 자세가 될 때까지 끌어올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내려준다.



◇ 스스로 돌아서기와 일어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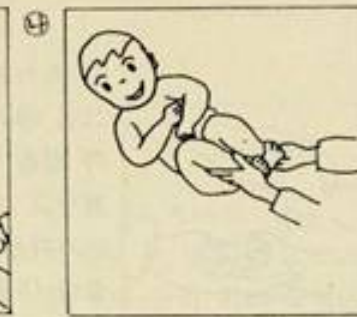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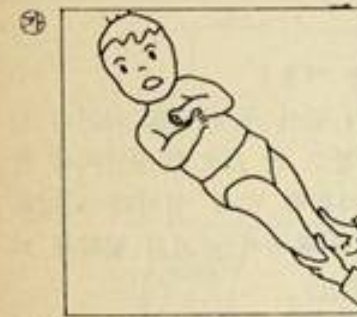
어른이 아기의 발목 부분을 그림 ㉙처럼 누르고 아기로 하여금 스스로 몸을 비틀면서 돌아 누워 보거나 일어나는 연습을 시킨다.

③ 다리운동

목적: 두 다리의 근육발달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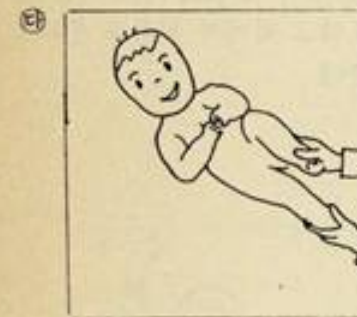
다리, 근육, 발을 뻗어 긴장을 풀게 한다.

무릎, 허리, 발목의 관절을 유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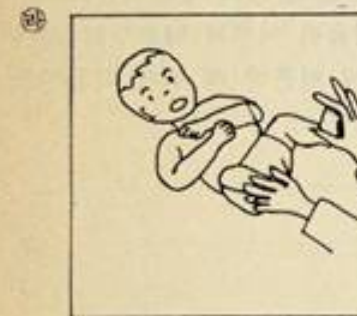
◇ 무릎 굽혔다 펴기

그림 ㉚와 같이 아기의 두 발을 쥐고 자연스럽게 아기의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아기의 다리를 쪽 뻗게 한 다음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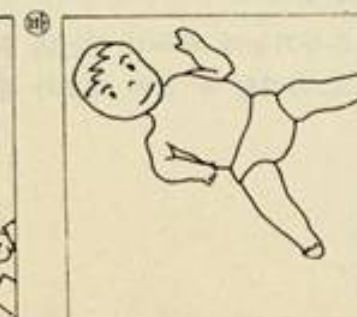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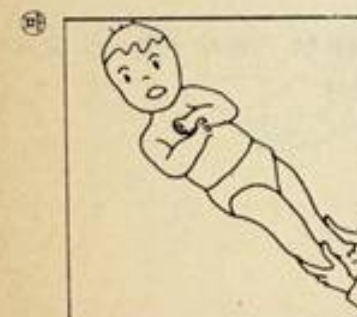
◇ 행진

그림 ㉛처럼 아기의 한쪽 무릎을 가슴까지 굽혀 끌어올리고 다른쪽 다리는 쪽 뻗는다. 서로 바꾸어 무릎을 굽히고 펴주는 동작을 계속해준다.



◇ 발바닥 누르기

그림 ㉜와 같이 아기의 두 무릎을 가슴까지 굽히고 어른의 두 손을 아기의 두 발에 대고 자연스럽게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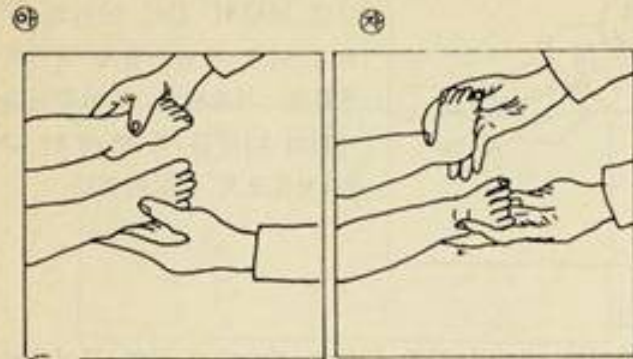


◇ 다리 벌리기

그림 ㉝와 같이 아기의 두 발을 쥐고 다리를 모아서 쪽 뻗게 한 다음 두 다리를 V자로 자연스럽게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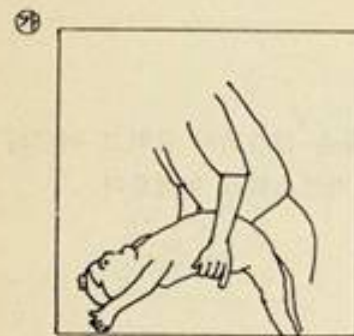
◇ 무릎 앉았다 서기(10개월 전후)
어른이 아기의 손을 잡고 그림 ㉔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무릎 앉았다 서기를 반복한다.



◇ 즐거운 발운동
그림 ㉕와 같이 두 손으로 아기의 한쪽 발을 잡고 한 손으로 장딴지를 받쳐주고 다른쪽 손의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아기의 발목을 펴준다.(5초간)
그림 ㉖와 같이 엄지손가락을 아기의 발바닥에 대고 밀어서 발목을 부드럽게 굽혀준다.

④ 등운동

목적: 등의 유연성과 등의 근육발달을 돕는다.



◇ 아치 뒹눅기
어른의 배 위에 아기를 태우고 그림 ㉗와 같이 아기의 두 손을 잡고 아기의 상체를 끌어올려 어른의 배로부터 사이를 두고 벌어지게 한 다음 다시 어른의 배 위에 되돌아오게 한다.

2) 13개월 이상에서 24개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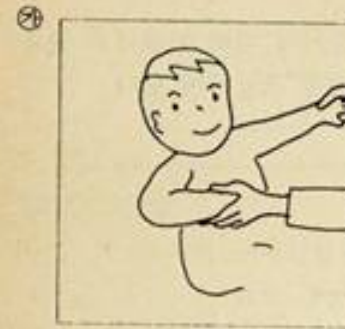
* 이 시기의 영아에게는 새로운 운동기능의 획득과 견는데 필요한 근력과 민첩성을 고려해야 하고 아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체조가 좋다.

① 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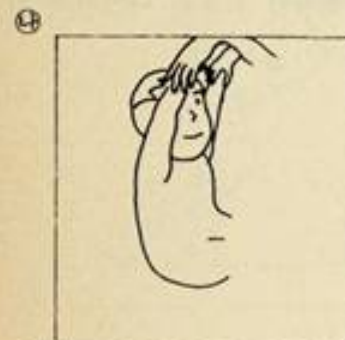
목적: 두 팔과 상체를 강화한다.

심폐기능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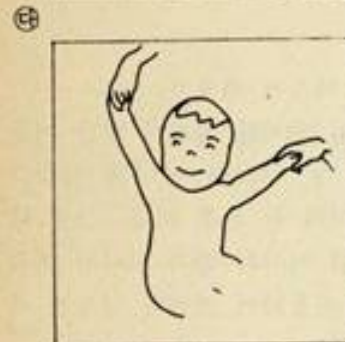
협조운동을 발달시킨다.



◇ 권투하기
아이와 마주보고 앉아 아기의 두 손을 잡고 그림 ㉘처럼 한쪽 팔을 앞으로 뻗고 다른 한쪽 팔을 팔꿈치에서 굽혀준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한다.



◇ 두 팔 흔들기
아기의 두 팔을 잡고 그림 ㉙처럼 아기의 두 손을 양옆으로 부터 머리 위까지 뻗어올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 엇은 뒤돌기
아기의 두 손을 잡고 그림 ㉚처럼 머리 끝까지 올려 상체 오른쪽, 왼쪽으로 뒤돌어준다.



◇ 가위자세
아기의 두 손을 잡고 그림 ㉛처럼 가슴 앞으로 팔을 뻗어 가위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 똥구나무 서기

아이의 두 다리를 잡고 그림 ㉑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몸을 움직이도록 한다. 이 때 아이의 허리를 조심해야 한다.



◇ 발잡고 두 팔로 걷기

그림 ㉒처럼 아이의 다리를 잡아주고 아이가 두 팔만 사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㉓ 몸통운동

목적 : 아랫배와 팔의 근육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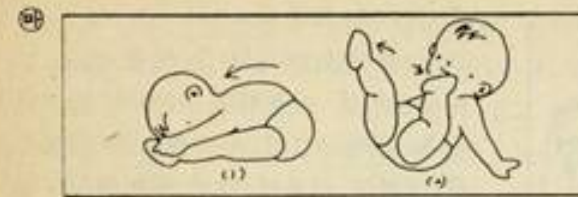
◇ 일으켜 세우기

그림 ㉓처럼 벌려서 뻗은 어른의 두 다리에 아이를 눕히고 아이의 두 손을 쥐고, 그림 ㉓처럼 아이의 팔과 교사의 근육을 이용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 뒤로 젖히기

어른의 뻗은 두 다리 사이에 아이도 다리를 뻗게 하여 앉히고 아이의 두 손을 잡고 그림 ㉓처럼 먼저 오른쪽으로 아이를 끌어 당긴다. 다음에는 그림 ㉓처럼 바닥에 아이의 머리만 닿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뒤로 쓰러지게 한다.



◇ 등뼈운동

그림 ㉔의 (1), (2)처럼 아이 혼자서 등뼈운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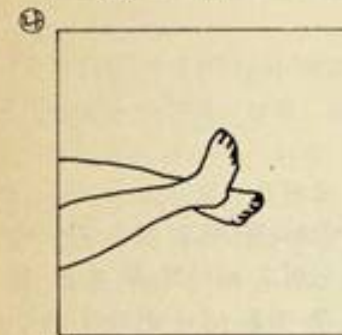
㉕ 다리운동

목적 : 두 다리의 근육발달과 유연성을 길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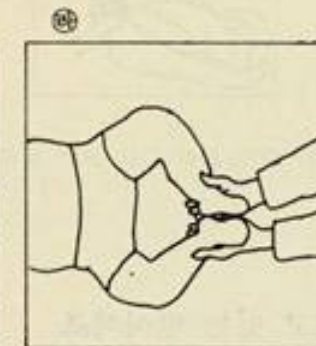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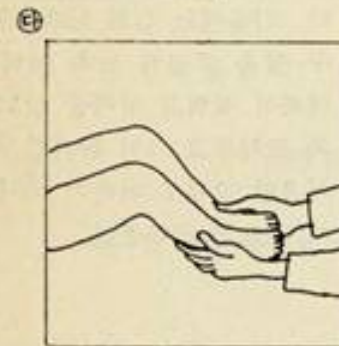
◇ 양 다리 퍼주기

그림 ㉕처럼 아이의 장딴지 또는 발목을 잡고 한쪽 무릎을 아이의 가슴까지 구부려주고 다른쪽 다리는 쪽 펴준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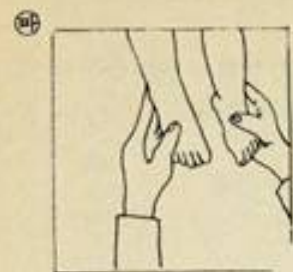
◇ 가위운동

그림 ㉕처럼 아이의 두 발을 잡고 발목 부근에서 교차시킨다. 바닥 가까운 곳에서 두 다리를 그대로 교차시킨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해준다.



◇ 나비운동

그림 ㉕와 같이 아이의 두 다리의 무릎을 가지런히 세워 발바닥은 바닥에 꼭 붙인다. 다음엔 그림 ㉕와 같이 두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고 두 발을 서로 붙인다.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만 벌린다. 점차 허리의 관절이 유연해지면 양 무릎이 바닥에 가까이 닿을 정도로 잘 벌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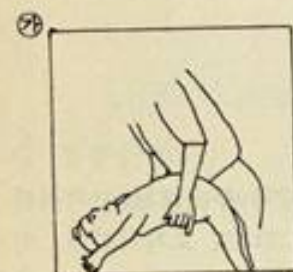


◇ 증거운 발운동

그림 ㉔처럼 아이의 두 발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아이의 발가락 끝을 자연스럽게 바닥쪽으로 향하도록 굽히고 다음엔 그림 ㉕처럼 두 발을 천천히 부드럽게 처음으로 되돌리며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눌러주고 발목을 세운다. 다시 발가락끝을 심지 않을 정도로 뻗게 한다.

④. 등운동

목적 : 등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른다.



◇ 다너 맛등기

두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두 무릎을 세운 채 눕히고 그림 ㉖와 같이 아이의 몸을 받쳐들어 바닥으로부터 몸체를 끌어올린다 (3초간)



◇ 앞으로 굽히기

어른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가운데에 아이를 앉히고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린다. 다음에는 그림 ㉗와 같이 아이의 두 팔을 조금씩 뒤쪽 아래로 가능한 데까지 젖히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도록 도와주고 그림 ㉘처럼 두 팔을 받쳐올린 그대로 머리가 바닥에 닿기까지 앞으로 굽혀준다.

4.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영아체조

◆ 걸음 흉내 ◆

1. 거북이 걸음(아가걸음) - ① 엉금, 엉금, 엉금(두 팔과 무릎으로 기기)
(갓난 아기 걸음) - ② 어기적, 어기적(엎드려 기기)
2. 토끼 걸음 - ① 앉아서 귀잡고 걷기

②장충, 장충, 장충(토끼 귀같이 손을 머리에)

3. 말걸음 - ①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손을 앞으로 해서 뛰기)
4.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 - ①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리고 걷기
5. 비행기 날기 - ① 붕, 부우웅(손으로 나는 시늉하기)
6. 코끼리 걸음 - ① 코잡고 걸음. 다른 아이 코도 잡아보기
7. 뛰어가기 - ① 혼자서 뛰거나 아이들 손을 잡고 같이 뛰

◆ 체조(요가자세와 같이) ◆

- 간식 먹은 이후나 점심 식사를 마치고

◇ 모두 둥그렇게 앉아서

1. 두 다리를 쭉 펴고 손을 발끝에 대고 엎드리기
2. 두 다리를 벌리고 손을 양발에 대고 엎드리기
3. 두 다리를 펴서 모은 다음 손을 바닥에 짚고 한 발씩 들기(두 발도 다 들어보기)
4. 눕기 - 누워서 손은 바닥에 대고 한발씩 들기
다음은 두 발 다 들기. 손과 발 다 들기

◇ 가부좌 자세로 앉아 체조하기(손은 양무릎에 대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1. 머리를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2.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3. 손가락 지압하기(오른손, 왼손) - 열손가락을 모두
4. 발가락 지압하기(오른발, 왼발) - 열발가락을 모두
5. 두 다리를 쭉 펴고 마무리 하기
두 다리를 안마하기(두드리기)
두 팔을 안마하기(두드리기)
6. 끝내기 - 두 손을 번쩍 들고 야!

** 같이 이어서 해도 되고 따로 따로 해도 됩니다.

II. 아기 맛사지

1. 아기 맛사지의 이해

맛사지는 손을 이용해 몸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쾌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상호애정을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신체로 하는 대화이며, 몸이 안좋거나 피로할 때 그것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신체적으로 본다면 맛사지란 동물들이 하는 핥기와 같다. 피부감각은 일찌기 발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기능의 하나이다. 피부를 자극하는 행동은 유기체의 신체조직의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이다.

맛사지는 아기에게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맛사지를 받는 아기는 가벼운 긴장을 느끼다가 나중엔 이완감을 느낀다.

아기의 감각기관은 순차적으로 발달한다. 즉 먼저 가까이 있는 대상에 직접 접근해서 작용할 수 있는 인접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감각으로 접촉감각은 가장 활동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맛사지를 통해 이 감각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애착관계를 형성시켜 준다.

또, 맛사지는 피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아기의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다.

2. 맛사지를 하기 위한 준비

매일 매일의 맛사지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아기가 6개월 내지 7개월일 때이다. 아기가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 등을 긁어 주거나 목욕 후에 몸을 문질러주면 좋아한다.

맛사지 하기에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나 자자기 전, 잠든 후, 저녁시간이 좋다.

장소는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 좋고 조용한 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기의 살갓을 부드럽게 하는데 필요한 기름이 필요하다. 살구씨나 거자씨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아몬드 기름이 좋다.

3. 맛사지 기법

아기가 어릴 때는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하고 아기가 자라면서 점차 강하게 해준다. 편안하면서도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길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한다.

4. 간단한 맛사지법

기저귀를 갈거나 아기를 채우기 전에, 간단한 맛사지를 해주고 싶을 때 하는 맛사지법이 있다.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아기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좋은 방법이다. 이 맛사지법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 ① 머리 둘레에 원을 그린다.
손끝으로 아기 머리에 조그만 원을 그린다.
아기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시작한다.



- ② 책장을 펴듯이 이마를 편다.
손가락을 펴서 아기의 이마 중앙에 댄 후에 마치 책장을 편편하게 펴듯이 이마에 댄 손을 아기의얼굴 양 옆으로 밀어낸다.



- ③ 턱 주위에 원을 그린다.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턱 주위에 작은 원을 그린다.



- ④ 책장을 펴듯이 가슴을 편다.
양 손을 아기의 가슴 가운데에 얹고 책장을 편편하게 펴는 식으로 아기의 갈비뼈를 따라 바깥쪽으로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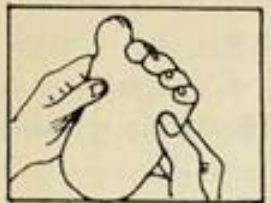
- ⑤ 팔을 굴러주고 손을 편다.
양 손을 사용해서 아기의 팔을 어깨에서 손쪽으로 굴러듯이 맛사지한다.

- ⑥ 배를 맛사지한다.
오른손을 왼쪽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구부려서 반달모양으로 만든다.
왼손은 밑에 댄다. 두 손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준다.





⑦ 다리를 굴러 준다.
무릎에서 발목까지 양 손으로 굴러듯이 문지른다.



⑧ 발바닥을 누른다.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준다.



⑨ 등을 앞으로 뒤로 문지른다.
아기의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와 직각이 되도록 양 손을 올려 놓는다. 양 손을 앞으로 뒤로 움직인다. 등에서 엉덩이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마사지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어깨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사지한다. 이런 동작을 반복한다.



⑩ 등을 긁는다.
오른손을 짝 펴고 손가락으로 등을 긁어내리듯이 마사지한다. 이때 방향은 목에서 부터 시작해서 엉덩이로 향해야 한다. 처음에는 다소 강하게 하다가 점차로 약하게 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끝낸다.

<참고자료>

「엄마랑 함께 하는 아이의 건강제조」, 타마라 메이저 원저, 하남출판사
「아기 마사지법」, 비밀라 슈나이더 지음, 웅진출판사
「키 잘 크고 머리 좋아지는 아기제조와 수영」, 황백현 지음, 민에서

■ 특집

가정내 응급처치

김철환 / 인제의대 부속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1. 가정내 응급처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로 40대 이전까지는 제1위가 사고이다. 이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교통사고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모든 사고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 후유증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받은 손상의 정도이다. 이는 사고자체를 예방하고 중대사고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 단계이다. 이때 얼마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했고,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후송했는가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병원의 시설과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후송전단계와 후송단계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환자의 예후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많은 선진국 국민들은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고, 범국가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후송단계에서 갖가지 통신수단과 후송수단을 갖고 있으며, 응급전문병원과 응급의료전문인들이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국민에 대한 응급조치교육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후송수단과 통신수단을 119로 통합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리고 응급전문병원도 설치하려 하는 등 최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어린이가 우발 사고를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추락과 교통사고이다. 이외에도 화상을 당하거나 약물이나 이물을 먹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모나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에 유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흔히 당하는 응급상황에 대해 비전문가라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요령과 사고예방법을 설명하겠다.

2. 여러가지 응급상황과 응급처치요령

1) 출혈

가정내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 흔히 출혈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피가 날 때 효과적인 것은 피가 나는 부위를 직접 눌러주는 방법이다. 비비지 말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 등으로 피가 나는 부위를 직접 눌러준다. 어떤 사람들은 하얀 색의 지혈분말을 뿌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상처부위를 살피고 드레싱하는데 장애를 줄 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집에서 소독하게 되면 상처가 늦게 나고 염증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흉터가 크게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찢어진 상처는 거의 모든 경우 꼬매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아이를 안심시킨 후, 고개를 젖히지 말고 앞으로 약간 숙인 다음 코의 앞부분을 눌러주면 된다.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며, 콧구멍에 억지로 솜을 넣어 틀어막는 것은 별도로 안된다. 계속 코피가 재발된다고 해서 꼭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피 나는 부위의 염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출혈성 질환 등이 있는지 꼭 살펴야 하므로 가정의나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큰 사고를 당해 팔이나 다리 부위의 동맥이 파열되어 피가 솟구치는 경우, 직접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지혈대를 사용한다. 혁대나 수건을 피가 나는 부위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에 감싼 다음 나무를 돌려서 압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맥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점과 15분마다 잠깐씩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2) 화상

화상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화상을 일으킨 원인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빨리 찬 물이나 얼음물을 화상을 당한 부위에 부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화상을 당한 정도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렇게 찬 물로 빨리 식히면 화상의 정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화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누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들만 하다.

- 1도화상 : 피부가 벌겍게 되고 환자는 따갑고 아프다고 한다.
- 2도화상 :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 3도화상 : 피부가 잿빛으로 죽어있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다.

1도화상과 2도화상은 완전회복이 가능하지만 3도화상은 치료후 반흔(흉터)이 크게 남

기 때문에 화상치료후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1도 화상은 얼음찜질이나 찬 우유찜질을 12시간 정도 하면 통증도 가라앉고 상처도 3-5일이면 낫기 때문에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다.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화상부위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지 말고, 피부에 밀착된 옷을 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상 부위의 물집도 터트리려고 하지 말고 냉찜질을 신속하게 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심한 화상을 당한 사람은 속에 빠지기 쉬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옮겨야 하고, 후송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나 하트만액과 같은 수액을 신속하게 공급하면서 후송해야 한다.

3) 이물질을 삼켰을 때

이물질을 삼키게 되면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식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후두를 막게 되면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쉬면서 얼굴이 새파래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때는 초응급상태이다. 이때는 아이의 가슴을 위에서 안고 일순간 눌러 폐안에 있는 공기가 기도를 타고 나가게 해서 이물질을 빼낼 수 있고, 또는 아이를 거꾸로 잡아 흔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 이물이 기도에는 들어갔지만 기도를 완전히 막지는 않은 경우에는 아이는 숨을 잘 쉬지 못해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만을 보이게 된다. 이때도 응급상황이지만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집에서 설불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옮기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땅콩과 같이 쉽게 부스러지거나 씹을 수 있는 물질을 삼켰을 때 뽑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영아의 손이 닿는 데는 아예 땅콩을 놓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식도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다행스럽게도 대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식도의 좁은 부위에 걸리는 수가 있으며 이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뽑게 되고, 만약 옷핀을 열린 상태로 삼키는 경우에는 식도, 위 등의 장관에 옷핀이 박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복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물질의 위치를 X선촬영을 통해 확인하면서 대변을 통해 배설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4) 농약이나 약물을 마신 경우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의학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농약, 약물, 양젓물, 쥐약, 식초 등의 순으로 중독된다. 농약이나 약물을 마신 경우 거의 모든 경우 빨리 토하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마셨어도 안심해도 되는 경우 : 체온계의 수은을 입으로 먹은 경우에는 금속 수은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뒀도 된다. 또 담배를 먹은 경우 거의 모든 경우 저절

로 토하게 되고 간혹 30분이 지난 후 구역질, 구토, 흥분,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4시간이 지나도 이런 증상이 없다면 안심해도 좋다. 따라서 담배를 먹은 경우 응급실에서는 4시간 정도 관찰하면 된다.

- 토하게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기름이나 유류는 토하게 하면 흡인성 폐렴에 걸리므로 위세척이나 관장을 시켜야 한다.

집에서 토하게 하는 요령은 물을 한 컵 마시게 한 다음 손(손톱이 길 때는 금물!)이나 설압자, 기타 둥근 것으로 목젖이나 인후 부위를 자극하면 된다. 최토제가 있는 경우 이것을 마시게 하고, 토하지 않으려 하거나 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빨리 위세척을 해야 한다. 아이가 먹은 내용물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꼭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경련

어린이가 열이 나거나 기타 이유로 경련을 일으켰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돌보아 주면 된다.

- 혀를 물지 않도록 거즈를 물리고, 아이를 꼭 안는 등의 자극을 주지 않는다.
- 머리를 옆으로 하고 고개를 젖힌다.
- 몸에 조이는 옷을 풀어준다.
- 열이 나는 경우는 머리 부분만 식혀준다.
- 입에 분비물이 많을 때는 흡입기로 뽑아준다.
- 경련의 모양과 시간을 순서대로 정확히 기억하거나 기록한 후 의사와 상의한다.

6) 개에게 물렸을 때

최근에는 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광견병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아 처치하기를 바란다.

- 물은 개가 광견병에 걸린 미친개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10일내 사망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꼭 가두어서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개를 관찰한 후 광견병 치료를 해도 늦은 것은 아니다.
- 상처는 즉시 비눗물이나 알코올로 상처 깊숙한 부위까지 깨끗이 닦아낸다.
- 옷이나 양말 위로 피부에 아무런 할된 자국이 없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필요없다.
- 피부가 가볍게 긁히거나 벗겨진 정도일 때 개가 건강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도 필요없다.
- 보통 개에 물려 상처를 입으면 위와 같은 요령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면

다시 드레싱을 받는다. 파상풍 예방주사와 세균감염을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아야 한다. 개나 사람, 혹은 어떤 동물에게 물린 경우나 상처가 매우 더러운 경우에는 처음 몇일간은 꼬매지 않고 몇일후 상처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꼬매는 것도 알아들만 하다.

7) 어린이가 머리를 다쳤을 때

어린이가 계단에서 구르거나 어디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된다. 더욱이 응급실을 찾게 되면 방어진료에 익숙해진 의사가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고가검사를 하라고 하거나 입원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이가 겉으로 보아도 전혀 상처가 없고, 다치면서 의식을 잃지도 않았고, 현재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검사도 의사의 신경학적 검사와 단순X선촬영이면 대부분 충분하다. CT나 MRI(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 따라서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대도 무조건 컴퓨터검사(CT)를 해서 그 결과를 보아야만 안심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어린이를 잘 진찰하고 다친 후 24시간동안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뇌출혈의 경우 처음에는 CT에 나타나지 않지만 점점 피가 고여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에 이상이 없다고 계속 안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린이가 현재 괜찮더라도 의사의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있거나 다칠 당시 나빠진 의식이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악화되는 증상이 있으면 CT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입원도 시켜야 한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사의 진찰과 판단에서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검사만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진정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8)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어린이

아마 집에서 어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을 것이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인지, 약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지 참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쉽게 찾아가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가족주치의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주치의와 상의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이런 의사를 갖고 있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어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떼를 쓰는 것 같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만 배가 아프다고 하고, 보통 때는 잘 놀고 잘 먹는다면 배가 아픈 이유는 일종의

피병이다. 특히 부모가 평소에는 애를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다가 애가 아프다고 할 때만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나 아이가 독립심이 부족해서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매달리는 경우에 잘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복통이라는 사실을 의사에게 확인한 후에 부모가 오히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얻게 되는 이득, 즉 부모의 관심이나 신체접촉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배 아픈 것이 없어진다.

어린이가 배가 아픈 흔한 이유중 대변을 보지 못해서 배에 개스가 차고, 위장관 운동은 활발해지는데 배변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가 많다. 이때 아이는 심하지는 않지만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고,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때는 따뜻한 비눗물이나 글리세린과 같은 관장액을 써서 관장을 시키면 바로 좋아진다. 가정에서 시도해 볼만한 응급처치일 것이다.

어린이가 심하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병이거나 입원, 수술을 요하는 병은 아니더라도 복통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아이가 계속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거나, 토하거나 피 섞인 대변을 보거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다.

3. 어린이 사고의 예방

때로는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거나 집에서 떨어져 머리 손상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없지러진 물이나 다름없다. 이런 경우 때로는 수술을 요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뜨거운 난로나 곤로,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은 절대로(!)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어린이 화상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아이들은 결코 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의해야 한다. 부모의 한 때의 실수 때문에 평생 토록 흉터와 팔다리의 장애 때문에 고민하고, 성격도 비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 부모가 평생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가정내 일어나는 사고중 어린이 추락사고가 많다. 아파트나 놀이터, 계단, 실내에 있는 이층침대, 의자, 난간 등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장난하다가 물이나 비누 때문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노는 곳을 살펴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해야 하며, 목욕탕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나무판이나 플라스틱 깔개를 놓는 것이 좋겠다.

침대나 계단 밑에는 카펫트를 깔고, 난간을 설치하고, 유아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평소에는 막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나이지리아와 같은 후진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귀한 생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많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면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는 어린이용 안전의자에 앉히고 큰 어린이인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도로에서 놀다가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차량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마땅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고에 있어서 어린이는 피해자이다. 천사와 같이 뛰어놀고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의 주위에 무슨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환경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상식을 익혀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장김치주문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토방식품으로.

토방식품 김장김치는,

여성농민들이 하나하나 정성들여 심고 가꾼 저공해 우리 농산물로 담근 곁쪽한 맛의 순 전라도식 김치입니다. 배추나 총각무, 고들빼기등의 기본재료에 파, 마늘, 생강, 무우, 당근, 청각, 굴 드응레 첨발죽에 버무려 담습니다 물론, 몸에 해로운 화학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토방식품 김장김치는,

수입농산물로 둘러 싸인 도시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농촌과 농산물을 되살리기 위한 뜻에서 판매되며, 그 수익금은 여성농민의 권익을 위한 일에 쓰여집니다.

☞ 가격 -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고들빼기) kg당 3,500원

집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시는 분은 것감이나 고추가루를 주문하시면 파, 마늘, 생강을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 주문은 하신 경우 가능하면 배달을 고려해서 몇 가정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농산물직판장 ☎ (0652) 245-5745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김명희 ☎ (0652) 291-3476

계좌번호 : 국민은행 509-01-0262-318 김명희(전북여농)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경제협동사업단 토방식품

좋은 그림책 소개

♪ 바쁘다 바빠

글 신지운, 신혜은 / 그림 김복태 / 웅진출판사 / 3,500원

돼지가 무슨 일인지 급하게 뛰어간다 "바쁘다 바빠."
무슨 일일까 궁금해진 친구들이 하나 둘 바쁘게 뒤쫓아간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일과 연결된 물건들을 들고
열심히 쫓아간다.
무슨 일일까?
돼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친구들은 코를 막고 바쁘게, 다시
되 돌아온다. "바쁘다 바빠."
아이들이 '똥 싸는 일'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 간단한 문장과 글의 반복, 알기 쉬운 내용으로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책을 본 이후 아이들과 역할을 나눠 동극을 해보아도 좋을 듯하다.
(3세 - 4세 아동)



좋은 그림책 소개

재롱이와 함께 배우기 ♪

글, 그림 맥 임크렌 / 이성출판사 / 각권 2,400원(총4권)

귀여운 강아지 재롱이와 함께
반대말, 숫자, 낱씨, 색깔 따위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림책이다.
군더더기없이 간결하게 그린 '재롱이'라는 강아지의 캐릭터는 마치 책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재롱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다.
색깔 배우기의 예를 들면
'초록색'을 이야기하는데 초록색 나무잎이 무성히 달려있는 나무 옆에 앉아있는
재롱이가 나뭇잎을 감아먹고 있는 벌레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
초록색이라고 글씨가 쓰여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초록색'이라고 읽어주고 책장을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아이와 그 장면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외국 그림책을 번역한 책이라
햄스터 명주쥐 등 생소한 동물이름이 나온 것은 불만스럽다. 그리고 '색깔
배우기'에서 푸른색은 파란색이라 써야 한다.
(3세 - 4세)



■ 화보

꿈을 갖고 쑥쑥, 함께 크는 우리 아이

-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의 모습들 -

편집부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어머니 큰잔치는 지탁연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가운데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고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 보육의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잡혀왔다. 특히나 어머니들을 그 주대상으로 하면서 여성(기혼여성)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끌면서 아동의 부모들이 누리는 문화를 보다 건전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한 문화충족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엄마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 지역, 각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의 성과를 내보이는 의미였다고 여겨진다.



웅장하고 힘찬 반주단(어깨동무)의 연주에 맞추어 하나 둘, 하나 둘 발맞춰 지역깃발이 입장한 후, 올해로 일곱살 먹은 어머니 큰잔치를 기념하여 그간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 지역의 어머니들은 서로 슬라이드 화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원지 신나서 싱글벙글. 내년엔 내 얼굴도 저렇게 나오려나.. 신입자모들은 기대를 잔뜩.

뭔가 어눌하긴 하지만 사회극이 해송아기등지 어머니들에 의해서 펼쳐져 새로운 시도도 엿보였다. 조명과 음향기기가 조금만 더 좋았어도 정말 멋진 효과들을 보일 수 있었을텐데...



방송에서 보았던 오숙희씨가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진행하며 아이 키우는 문제가 과연 엄마들의 몫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역의 자모, 자부,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라디오에서 간간히 들었던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직접 나와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집안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선 주부들의 힘이 막강해야 한다는 격려(?)도 받았다.

자모와 교사가 함께 준비한 막대동화 '말뚝이 아저씨'는 정작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 어른들만 보기엔 왠지 아까운 마음까지 들었다.



올해 어머니큰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꼬마손님들의 열창 아닌 열무(?). 인천지역과 구로지역의 어린이들이 나와 신나고 멋진 율동을 선보이자 좌석에 앉아있던 모든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더 잘 보려고 일어서는, 일대혼란이 벌어졌다. 뒤를 이어 인천지역 교사노래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 분위기를 차분히 진정시키고 나니 다소 관객들이 안정을 되찾으며 노래를 감상. 하다가, 구로지역 어머니노래단의 개사곡 발표와 율동으로 청중은 또다시 열광. 열광. 열광...

참다못한 어느 지역은 일어서서 율동을 따라하고 박수를 치느라 정신이 없고...



풍물공연으로 풍겨온 우리 가락을 감상하고 나니 아쉬운 폐회식.
최현숙 회장의 폐회선언에 맞추어 환호성과 함께 공동육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 날린 종이비행기, 비행기들...

올해는 유난히 전시회가 돋보였다고 한다. 어머니들이 손수 준비한 전시회는 각 지역의 자모 소모임이나 자모회의의 활동경험과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는 이들이나 준비한 이들이나 모두들 흐뭇했다는데... 덕분에 전시회 구경하느라 본행사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하고 있다.

미리 오전에 도착한 지역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신나게 몸을 놀리느라 숨이 차서 헉헉, 오랜만에 어릴 적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귀한 시간들이었으리라.



아이들은 언제나 즐겁다.
야외놀이마당에서
바구니에 오재미를
넣느라 정신없는 아이들.



어머니 큰잔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정신없던 우리의 이쁜 대학생 자원활동가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글썄, 어머니 큰잔치가 가능했을까...

그래, 아이를 키운다는건 누구 한사람에게 떠맡기는 일은 아니지.
당신과 내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사회가, 정부가...
우리 맞잡은 손,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사랑을 우리의 아이에게도
전해주자구.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씩씩 커갈 수 있도록 말아야...



어머니 큰잔치를 준비하고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 보다 풍부한 내용과 모습으로 만납시다!

■ 긴급입수 1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민주당)안

1.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육대상을 보육의 욕구를 가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등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육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1조)

나.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둔다 동시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직장보육사업의 확대를 도모함(안 제7조 및 제31조)

라. 인가의 취소나 폐지 명령 이전에 시정 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처벌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2조)

마. 보육대상 아동의 건강 관리와 사고 대비책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제고시킴(안 제20조)

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보호자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지역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게 함으로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2조)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제5호는 현행 제3호, 제4호와 같게 한다.

1. "영아"라 함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유아"라 함은 3세 이상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2항으로, 동조제2항을 1항으로 바꾼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설, 보육정보센터, 국공립시설의 위탁자 선정, 보육시설의 인가, 취소 및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 도, 구(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각급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육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⑤현행③과 같음.

제5조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하며, 구청장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상담 및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중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신설한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군수의 이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육대상 아동이 30인 이하일 때에는 시장, 군수에 대한 신고 만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이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중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수용 인원 15인 이하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현행 동조제2항과 같음.

④현행 동조제3항과 같음.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시정명령 및 인가의 취소 등)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보육시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현행 동조 제1호~제4호와 같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청문) 보건사회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육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의견을 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구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 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등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정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사고발생시 조치할 수 있게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실종을 예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영유아 실종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보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주민의 자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2.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설치·운영비
3. 기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4. 보육위원회의 운영·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

제31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 설치한 자
2.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칙삭제) 법률 제4328호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 긴급입수 2

민자당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변경안

민자당에서 최근에 변경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지난 10월호의 지면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민자당 주양 자의원의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으며, 본 회에서는 민자당 개정안에 대한 분석 끝에 의견서를 민자당에 제출하였고, 11월 12일에 민자당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자당에서는 다소 변경된 개정안을 다시 발표하였고,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민자당 개정안중 10월호의 개정안과 다른 부분만 선별하여 실는다. 독자들은 10월호 “우리네 아이들”에 게재된 개정안과 비교하면서 보길 바란다.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③.....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대통령령이..... 소속근로자 자녀의 보육시설을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보육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②.....다만, 3세이상 6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제1호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자
제 3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 3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7조(우선입소)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7조(우선입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장학지도등)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등)①.....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건강진단) (신 설)	제20조(건강진단)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 6 장 벌 칙	제 6 장 벌 칙
제31조(벌칙)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31조(벌칙) 3.....등록의.....
부 칙	부 칙
제2조(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2조(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장유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유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사업장유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4조(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5조(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여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가 3세 이상 6세미만의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9조제2항의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 (설치인가를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작은 기획 이어가기

북녘의 전래 놀이

변미양 / 재정간사, 편집부

가을 늦게까지도 신문 지상을 앞 다투어 채우던 북·미 협상.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진 몫은 지원금 부담이 얼마나 쏠렸고, 그에 대해 주체적일 수 없었던 당사자로서 아픈 감정을 지금까지 잊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편 성급한 건지 재빠른 건지, 기업의 경험 전파와 움직임은 대화의 얼음장 틈새를 요리조리 헤쳐가며 그런데도 활기 띤 모습인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의 세대에게 조심스럽게 내 비치지고 있는 통일론은 '올며 겨자먹기'식의 비 주체적인 정치적 모습일 수 없고, 장삿군의 소관인 듯 일부 기업인들만 앞서 가셔도 안되는, '흩어진 핏줄의 어울림'이어야만 하겠기에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곱삭혀 묻게 된다.

아마도 그것은 '그 시절 고향에서 그네들과 함께 놀던 게 뭐였지, 아마 요즘 애들하곤 다른 것 같아.' 추억하는 어르신네의 희미한 기억만치나 희미해진 서로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우선일 듯하다. 그러는 중에 어쩌면 거울에 비춰진 것이 바로 내 모습 이구나, 낮은 목소리로나마 내뱉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과 안타까움으로 북녘의 친구들을 날 때부터도 본 적이 없는 우리네 아이들에게 언뜻 언뜻 그 북녘 친구네 모습을 비춰주고 함께 어울려 놀아보자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아이들 선생님부터 챙겨 봐야겠다. 그나마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이질감 없이 따라 불러 재끼는 아이들이기에 너무 낮은 작업일 것일지 모른다는 기우는 일단 접어두고 말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 본 아이들의 전래 놀이라는 시각을 조금 넓혀 북녘 동포들이 즐기는 민속 놀이를 그 전래와 성격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 보기로 한다.

민속 놀이의 전래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딱딱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어디서나 놀기를 좋아한다 ...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했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의 기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보내온 취재 기사의 한 귀절이다. 누구나 1인1기의 교양 사업으로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춤도 잘 추며 '열심히 노는 것도 인민의 도리'라는 것이 기사 제목이었다. 북녘 사람들이 잘 논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닐 것이다. 우리 남녘 사람들도 워낙 춤과 노래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 기록에도 우리 사람들은 가무를 즐긴다는 기록이 있다지 않은가.

북녘에서의 놀이도 우리와 다를 없이 노동을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충전시키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시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해방 직후 북한 각지에도 민속 놀이가 매우 활발하게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제 치하에 이미 많은 놀이가 소멸되었지만 전래의 농경 사회에서 뿌리를 둔 놀이들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령 각종 기념일 등에는 반드시 풍물패가 행진을 주도하고 그네, 씨름 등이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사 편찬위 편 인제군당보고서 1948~49)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전후 복구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집단 경리화가 완성되어 가면서 전래의 마을 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전래의 민속 놀이는 급격히 많은 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사라져 가는 놀이의 조사와 더불어 이를 새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준비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9월에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서 『조선의 민간 오락』이란 책을 통하여 일단 1차적으로 놀이의 개괄적 조사가 완성된다.

이 책에서는 편싸움 등 17개의 놀이가 정리되고 특히 봉산탈춤과 꼭두각시극의 대본이 채록·보고되었다. 여기에 실린 봉산 대본과 꼭두각시극은 당시 봉산탈의 거장인 봉산군의 리장산 웅과 황해도 신천군의 꼭두각시 조종사 양성룡 웅의 구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탈놀이와 노래, 춤 등에 대한 조사 연구의 목적은 '우리 문화의 유래를 고찰하고, 사회주의적이면서도 민족주의적 내용을 가진 오락 형태를 창작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5년 8월에 민속학 연구자들이 사리원에 방문하여 봉산 구음을 현지 조사하고 서흥 탈놀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했다.

1955년 가을에는 황해도 탈놀이 등이 영화화 되어 많은 북청 지방의 다양한 민속 놀이가 조사되며 『조선의 민속 놀이』(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실)란 책으로 집대성된다.

북한 사회 역시 옛 모습 그대로의 민속 놀이는 많이 소멸을 거듭해 가는 단계에서 우선 1차 조사 연구를 거치면서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탈춤만은 아니다. 북한 민속 놀이의 그러한 발전 경로를 몇 가지로 가닥을 나누어 살펴 보면 이 점은 남한 사회에서 일찍이 60년대 이후에 국가적으로 탈춤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가고 이후 대학가에서 탈춤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추이와 비교돼 매우 흥미 있는 대목이다.

북한에서 민속 놀이의 변화 과정은 결국 새로운 정착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민성과 민속놀이 - 자주성과 계급성, 집체성 강조

이렇듯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에서의 민속 놀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높이 평가된다.

첫째, 민속 놀이의 풍부한 '인민성'을 강조한다. 이는 대부분이 놀이들이 '인민들 자신이 창작하여 인민들 자신이 놀았고 인민들 자신이 즐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씨름, 그네뛰기 등이 전 민족적 놀이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온 것은 거의 대다수의 놀이들이 일상 생활과 불가분의 연계 속에서 자라왔음을 주목한다. 그런 놀이들은 놀이의 방법이 알기 쉬우면서도 내용이 풍부하여 흥미진진하고, 따라서 착취 계급의 부화하고 투기적이며 타락한 기분을 반영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민속놀이에 담겨진 건전한 취미와 높은 문화성을 지적한다. 평범한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꽃 시절의 한때를 즐긴 '화전놀이'에도 시가가 있었고, 나라를 보위하는 싸움터에서 하는 놀이들은 모두가 단결하여 용감히 싸우도록 추동했다고 본다. 즉, 민속 놀이들은 집체성이 강하여 단결과 친목의 고상한 품성을 기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강강수월래'나 '췌지나 칭칭나네'는 왜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사람들의 단결과 투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동들의 유희인 '단심줄놀이'는 항일 투쟁기에 단결을 고취하고 꺾기하는 데 고무적인 힘이 되었음을 예로 든다.

셋째, 민속 놀이에는 한민족의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청서가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한다. 누구나 일하던 일손을 일단 놓으면 복 장단을 칠 줄 알았으며 춤판이 벌어지면 그 속에 뛰어들어 한바탕 춤을 추지 않고서는 못 배겼음을 예로 든다. 동시에 운동 경기나 겨루기의 뛰어난 기교와 재미, 이를 통한 침착성, 대담성도 지적된다.

결국 북한 사회에서는 전래의 민속 놀이의 뛰어난 '인민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민속 놀이를 크게 가무 놀이, 경기 놀이, 아동 놀이로 분류하고 있다. 가무 놀이는 노래와 춤, 음악을 중심으로 한 것을 꼽고 경기 놀이는 운동 경기를 위주로 하는 놀이를, 겨루기는 주로 실내 오락과 겨루기를 포괄한다.

이중 북한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몇 가지 놀이를 살펴본다.

가무놀이 : 농악, 탈놀이, 웅혜야, 돈돌라리와 달래춤, 췌지나 칭칭나네, 강강수월래, 놋다리, 화전놀이, 마당놀이, 방천놀이, 시절웃놀이, 봉죽놀이, 길쌈놀이, 다리밟기, 꼭두각시놀이, 동놀이, 불꽃놀이 등.

경기놀이 :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돌팔매놀이, 쥐불놀이, 차전, 제기차기, 햇불싸움, 장치기, 공치기, 격구, 마상재, 소싸움 등.

겨루기 : 윷놀이, 쌍윷, 장기, 바둑, 고누, 수루, 종정도놀이, 람승도놀이, 고을모듬, 칠교놀이, 산가지놀이 등.

아동놀이 : 단심줄 놀이, 연띠우기, 팽이돌리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수박 따기, 진놀이, 숨바꼭질, 까막잡기와 사람찾기, 망치기와 돌아차기, 자치기, 대말타기, 줄넘기, 공기놀이, 실뜨기, 싸움과 꽃싸움, 다리 셈놀이, 수박차기, 각시놀이 등.

이런 놀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련의 성격들을 정리하면 첫째, 민족 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상 전래의 문화에 대한 강조는 「자주적 힘으로 성장해온 무궁 무진한 창조성의 발현」이라는 시각으로 나타난다. 둘째, 생산자들의 낙천적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를 염원하는 강고한 계급의식을 일관되게 담고 있다. 셋째, 인민들의 위와 같은 놀이가 보다 자주적인 반외세투쟁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 아동 놀이 부분에서는 보다 집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집체생활에 대한 교양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비하게나마 북한의 민속 놀이의 전래와 성격 등을 살펴 보았다. 언뜻 짐작만으로도 체제 수호적인 집체성과 투쟁성에 성격이 많이 윤색되리라 싶지만, 나름대로 민속 놀이를 재 해석하고 성격을 살려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놀이란 그 성격을 규정하고 목적을 규명한 뒤에 의도적으로 진행된다기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특히 아이들의 놀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된다. 이 점만으로도 전래 놀이의 전승은 밝게 보인다. 조금은 퇴색된 옛 놀이의 문화를 다양하게 알리며 자리를 제공하여, 자칫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기계와의 놀이로 단절된 아이들의 생각와 몸의 공간을 유기적이고 상호교감이 가능한 놀이의 장으로 이끌어 주는 의욕적인 일이 더 많이, 더 힘차게 벌어져야 한다.

이제 막 서리 맞아 단맛 든 감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 주자. 모양새를 요모 조모 살펴보다 드디어 윤기 흐르는 껍질을 눌러 보면 물처럼 흐르지도 않으면서 촉촉하고 달콤한 맛의 썸이 터져 나온다. 그 끈적끈적하고 흐물흐물 단물의 요상한 맛을 혀끝으로 핥아보게 하자. 이내 아이는 신기해 하며 그것을 함께 맛 보자고 친구에게도 권해 보지 않을까. 놀이란 그렇게 감의 감칠맛을 보듯 흥미로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렇듯 흥미로운 맛을 겪들인 우리의 놀이가 많이 숨겨져 있다. 부족한 자료지만 우리의 놀이를 찾아보자는 의견 제언을 한 정도로 빈 공간을 채우며 아쉬움을 접어 둔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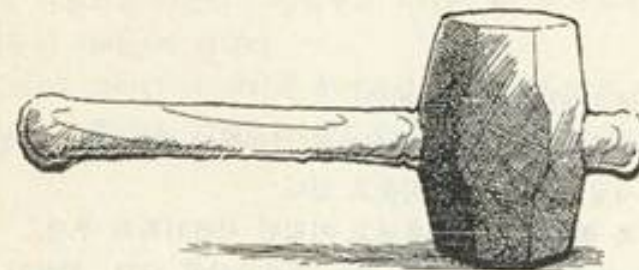
1) 주강현(민속학자, 한국역사민속학연구소장) 씨의 「북한 동포들이 즐기는 민속 놀이」라는 글을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이젠 외양간 좀 고칩시다

공 고

성수대교 참사 이후
더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두들겨 보고 건너십시오!

서울특별시장

■ 시사말뚱이

이전 외양간 좁 그칠시다

편집부

시루 안에 콩나물이 되버리는 출퇴근길.

그나마 탁트인 한강을 바라보면서 각박한 서울생활에 여유를 갖곤 했을 것이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는 모습 -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을 수 있는 서울의 꿈을 꾸고 한강의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요즘 한강다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옛가락처럼 뚝 부러져내린 성수대교, 긴장과 불안으로 한강다리를 건너며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는 현실.

오늘은 무사하십니까?

.....

동호대교를 건너며 끊어진 성수대교를 바라보고 있자니 단절된 이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듯해 씁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실공사의 '부'자만 들어도 부들 부들 떨리는 서울 시민의 심장은 이미 강심장이 아니면 버티고 살 수 없는 낯선 곳 - 서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불안의 스트레스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루가 무섭게 터져나오는 대형사고가 연이어 보도되자 '제 명대로 살려면 집밖을 나오지 말라'는 옷지 못할 억지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은 각종 위험요소에 노출될 대로 노출되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는 지대가 된 것이다. 어느 가수가 목청껏 불러댔던 대한민국의 찬미는 이렇게 귀결되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년동안 서울 시민의 4700여명이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밤새 안녕 날벼락을 맞는 것인데 그럼 이 날벼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리도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지경까지 온 붓물의 정체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

해외에서 명성을 얻은 한국 건설의 허상.

밖으로 나가면 원칙적이 되고 안에 들어오면 변칙적이 되는 한국 건설의 진상.

외신들은 이같은 사실은 보도하며 비웃고 있다.

그저 싸고 빠를수록 좋다는 사고. 폭넓고 치밀한 사전기획의 부재.

큰 사고나 터져야 그때서야 호들갑을 떠는 관료주의의 단면, 양심의 끈은 딱하니 끊어다 버린지 오래인 편법주의의 또 한면. 이것 저것 볼 것 없이 대충 얼렁뚱땅 번지르르게 만들면 된다는 적당주의의 또 또 옆면. 그리고 이를 총연출하는 국가관리의 부실. 아! 또 또 또 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당연한 결과였다.

.....

그래!

설령 건설업체가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려고 한다 치자.

감리만 눈을 감지 않으면 엉터리 공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시공업자가 감리사를 선정해왔다는데 있다. 애초부터 감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뒷돈'의 짙은 키워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시공업자와 감리사만의 관계는 아닐 듯 싶다. 이를 조성하고 당연시되는 사회풍토가 아니었다면, 양심이 움직이고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면 이같은 시나리오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철근일을 하고 있는 어느 일용건설노동자는 자신은 절대로 아파트에는 안살거란다. 그 이유인즉 자재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휘청 휘청 거린다는 것이다. 하자가 있으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노동자의 모습에서 끊어진 다리를 연상하는게 무리일까.

그래, 이미 물은 얼어졌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항상 소일고 외양간 고치려는 작태도 작태려니와 그 꼴이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충분히 사고원인이 조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조사기관의 공정성이 보장이 안되어 제대로 조사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사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의 행정처리가 이를 더욱 부추켜 사고예방기회를 놓쳐 버리는게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언제 또 큰 소를 잃게 될 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

외국의 경우 건축물의 수명을 100년을 보고 짓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10-20년밖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낯설지 않게 서울시내 곳곳에 붙어있는 '공사중'의 낱말. 뜯고 뜯어 고치는 서울. 짜집기에 급급한 정책은 언제까지 임시방편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얼마전 '에콰토리아'라는 아프리카의 작은 독립국가가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 겨우 9개 부족으로 구성된 작은 나라이다. 가난하지만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로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거들먹거리는 허세의 끊어진 다리와, 양은으로 물주전자를 만드는 - 그 노동자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랬다 - 성실성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렇다고 되돌아 가자는게 아니다.

다만 누더기가 다 되버린 이 사회에 총체적인 공사를 할 때가 이젠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 뿐이다.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 글마당

♣ 탁아소별곡
어린이사랑방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점심을 먹고 나서 옷을 벗고 세수하는 시간.

둘리선생님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마침 혜경이(4세 여아)가 옷을 미처 안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한 둘리선생님.

선생님 : 혜경이, 너 배꼽 어디갔니?

혜경이 : 내 배꼽 여기 있잖아요. (혜경이, 옷을 젖히고 배꼽을 가리키며)

선생님 : 아난데, 이건 선생님 배꼽인데. 혜경이 배꼽은 어디 있어?

집에다 두고 왔구나.

혜경이 : 아니예요, 내꺼예요.

선생님 : 아니야, 이건 선생님 배꼽이고 혜경이 배꼽은 집에다 두고 왔나 봐.

혜경이 : 아난데....

잠시후,

선생님 : 혜경아, 혜경이 배꼽 어디갔니?

혜경이 : 배꼽 없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이야기 둘.

낮잠시간 전.

무슨 안좋은 말만 들었다 하면 "잉-." 사이렌을 울리는 진수(27개월 남아)가 쉬할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 : 쉬하세요, 진수.

진 수 : (쉬통을 대더니 금방 내려놓는다)

선생님 : 진수, 다시 해봐, 쉬-.

진 수 : (반복)

선생님 : 이 녀석 쉬 흉내만 내고 있네. 다시 쉬-.

진 수 : 이잉-.

선생님이 드디어 쉬통을 대주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화아-'

낮잠을 잘 때 진수가 인사하는 말

진수 : 텃넨니(선생님), 꿈속에서 만나요, 안녕데세요(안녕히 주무세요).

선생님 : 으음(?!)

이야기 셋.

오전에는 간식시간 전이나 이야기 나누기 끝난 후 등, 단체로 쉬를 시키니까 실수할 예가 없는데 오후, 특히 '옹가'는 실수하는 아이가 많다. 단체로 옹가할 순 없으니까.

어느날, 자유놀이시간 영천이(4세 남아)가 지나가는 소리로 "선생님, 나 옹가."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만 잊어버렸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영천이는 탁아소 마루에다 점을 찍어놓았다. 마지막 한 점은 영천이 엉덩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이거 원, 아이들을 위한 배변훈련인지, 선생님 옹가 치우기 훈련인지...

■ 우리들의 목소리

영아탁아소 교사엠틀을
다녀와서

오연환 / 다우리어린이집 교사

가을비가 질퍽하게 내리는 10월 8일.
우이동 산장을 향해 모여든 우리들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였다.

멀리 광주에 있는 도담도담 어린이집
에서 영아탁아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우산을 받쳐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뜻밖의 만남이었지만 영아탁아모임이
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온 손님이었기에 벅찬 감동과 포
근함 속에 늦은 저녁을 맛있게 나누었
다.

영아 기제조와 맛사지법, 영아탁아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아기가 되어보기도 하며 때 아닌 어린
동심의 세계로 젖어들었다. 어릴 적 아
빠가 태워주시던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귀너머 동구밖 구경도 해보고, 아빠의
큰 손바닥위에서 똑바로 서서 '둥게 둥
게'도 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어린시절의 놀
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놀이인가를 새삼
느껴본다.

영아탁아소모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면서 영아탁아소모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만남을 통해 각 영아탁아
소의 활동을 극대화시켜 나감은 물론 각
지역에서 훌륭한 영아탁아소로 자리를
굳히도록 모범을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서로 모았다.

얼마 남지 않는 하반기 동안 영아 교
육의 교육관, 발달 단계, 교육계획안을
잡아서 영아탁아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가을밤 긴긴 밤 가을 빗소리에
낙엽지는 소리를 벗삼아 한 선생님의 구
구절절한 사랑 얘기에 거하게 술잔을 기
울였다.

어느새 새벽안개에 묻혀 날은 밝아오
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북한산을 바라
보며 가을의 타는 봄은 단풍잎을 가슴에
안아보고자 산으로 향한다. 곱게 물든
단풍을 한잎 두잎 밟으며 하늘을 보았을
때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가 바람이 되
어 눈에 꽂힌다.

국화 향기 그윽한 시월에...

김예정 / 해송아기둥지 자모
(김다른 어머니)

해마다 치뤄지는 '어머니 큰잔치'가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까 궁금
하던 차에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극을
해송아기둥지 어머니들이 하면 어떻겠냐
는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어머니들은 무
척이나 당황 하였다.

모여서 연습할 시간도 여의치 않거니
와 무대 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잘 표현 할 수 있을지, 대사는
잊지 않고 할 수 있을지 등등...

막상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어머니들이 시간
을 낼 수 있는 일요일과 평일 저녁 늦게
만나서 연세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의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하
였다.

밤잠을 설치 가며 대사를 외우고, 관
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를 느
낄 수 있도록, 표현 하나 동작 하나 하
나에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였다.

이 찜찜한 극 하나를 무대 위에 올리
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지
탁연' 측의 숨은 노고를 실감할 수 있었
다.

드디어 행사 당일 국민학교시절 학예
회 때 느꼈던 진장되고 상기된 기분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 그동안 연습한 내용을

온 몸으로 표현 했다. (실수도 하였지
만) 관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을까?

물론 바로 뒤에 진행 되는 좌담회를
통해서 많은 공감을 가졌으리라 본다.

하지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너무 아빠만을 주공격의 목표로 삼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많은 아빠들이 가
사나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
도 이를 지지하는 쪽이다. 대다수의 아
빠들이 가사나 육아에 같이 동참하고 있
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아빠들은 인
식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
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일하는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아빠들에게
가사·육아의 공동 분담 역할에 대해 그
당위성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효율적인 진
정한 '공동육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
다고 본다.

'어머니'날이 '아버지'날로 바뀌었듯
이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가 '일하는
아버지 큰잔치'로 표어부터 바꾸어 명실
상부한 엄마·아빠 큰잔치가 되었으면
하고 조심스럽게 '지탁연'측에 제안해본
다.

그래서 이 행사에 아빠들이 따라 와
서 관객인 입장에서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 하는 주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육아'가 잘 되어 있는 가정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극복하기 어려웠던 점을 슬기롭게 대처
하고, 이거 나왔던 것을 발표하게 하여,
그렇지 못한 가정의 길잡이가 되고 귀감
이 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 속에 포

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올해는 아빠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 해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다.

일년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 행사에 참석하여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처지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재충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즐겁고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지탁연」측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의 어두운 면과 그릇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선구적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다. 「지탁연」과 같은 단체가 있음으로써 우리 어머니들은 더욱 힘을 얻어 사회활동과 가사·육아를 병행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수고하신 회장님과 모든 진행요원 여러분께 많은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극을 하고나서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연세대학 사회사업학과 학생들에게도 그동안 시간을 내서 연극지도 해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전하고 싶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되고 알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한다.



■ 탁아계 풍향

제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 어린이에게 꿈, 인류에게 미래를...

전세계의 교육용품 제조업체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사제품을 소개하는 제1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 다음달에 4일간 진행된다.

일시 : 1994. 12. 8(목)~12. 11(일)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주최 : 세계전람(786-6776)
주관 : 월간유아(274-9510)
후원 : 한국방송공사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사)한국어린이육영회
(사)어린이문화진흥회

전시품목

유아용 학습 기자재/교보재
정서교육 및 예.체능 교육 기자재
게임기기류
교사용품
유치원, 유아원 설비 및 운동용품
단체 견학, 체험 학습장 안내 홍보관
교육기관, 강습소, 지원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7주년 기념 심포지움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마련한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시 : 94년 12월 15일(목)
오후 3:00-6:00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 * * *

미아찾기 음성서비스 신상품 선보여

길을 잃었을 때 혼자 힘으로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어린이나 정신지체아,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상품이 나왔다.

24시간 자동음성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주는 미아방지시스템이 그것.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새긴 반지나 목걸이등 종전의 미아찾기 명찰에 자동 음성서비스기능을 합친 아이디어상품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안내전화번호와 회원번호가 새겨진 은팔찌나 목걸이, 회

원카드를 발급받는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아이가 차고 있는 팔찌에 적혀있는 안내번호와 회원번호로 전화를 해 보호자의 집과 회사 전화번호, 삐삐번호, 기타 다른 연락처와 약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잃어버린 보호자가 사고접수 센터에 신고하면 이 센터는 아이의 얼굴

사진과 인상착의, 사고지점과 연락처를 인근 파출소와 경찰서 및 각종 육아관련 단체에 팩스로 전송해 준다.

회원이입료는 찾는 대상에 따라 어린이 2만5천원, 성인 3만5천원, 애견은 1만5천원.

문의전화 422-5468~9

* * * * *

* * * * *

<11월 연합회 구비 도서/자료 목록>

세상을 바꾸는 여성농민 제9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산여성 12호 / 부산여성회

월간 말 11월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소식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다비타의 집 9.10월호 / 다비타의 집

통일샘 4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월간유아 11월호 / (사)한국유아교육원

월간유아 부록 12월 교육개혁안 /

(사)한국유아교육원

사랑마루 2호 / 한림출판사

복지시대 가을호 /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전국약사신문 94.11.5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자신문 94.11.11일자

들소리신문 94.11.13일자

기독교신보 94.11.12일자

겨레사랑 47호 / 겨레사랑운동실천연합

함께걸음 10.11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의정활동소식지 한걸음 4호 /

제주도의회 이영길의원 정책연구실

동화읽는어른 30 /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YMCA소식 10월호 / 한국YMCA전국연맹

학부모신문 94.11.5. / 참고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가정상담 94.10 / (사)한국가정법률상담

기독교여성11월호 / 기독교민회

유아교육신문 94년 11월 21일자

기독교신보 94년 11월 19일자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여성단체, 영보법 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 가져

지난 11월 12일(토) 오전 10시, 본회가 입주하고 있는 여성평화의 집 지하회의실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본 지탁연 외에 한국여성단체연합(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본 회 최현숙 회장은 아동의 건전한 양육조건의 조성 개선에 대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민자당 중앙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직장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보육의 질적 고양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에서 의견이 편향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민자당 개정안에 대한 본 회의 의견은 지난 10월호에 실은 바 있다.

- 직장보육시설 관련 심포지움 열려

한국여성민우회의 주최로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11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세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94년 현재 월평균 총보육비가 평균 25만6천원으로, 주택자금 등 저축을 제외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활비의 20%이상이라는 응답(전체설문자의 40.1%)이 많았다고 한다.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으로 기업과 국가의 재정지원과 적극적 정책이 실행될 때 가능함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날 심포지움에는 본 연합회 최현숙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여연 정사위, 중간지도력위한 워크샵 가져

여연의 '정책과 사업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5일(토) 2시부터 6일(일) 4시까지 1박2일간 송실대 사회복지관에서 '한국여성운동의 나아갈 길, 고민 나누기'라는 주제로 여성운동가의 중간지도력을 다지기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전국 여연 산하단체 7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렇게 높은 참석율은 여성운동 전망에 대한 갑갑함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현재의 지점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프로그램 내용은, 1부는 조희연씨의 발제로 한국 사회발전의 전망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2부는 '한국여성해방운동론의 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승희씨의 발제로 토론이 있었으며, 3부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윤정숙 정사위위원장의 발제가 있는 후 조별로 나뉘어 과제를 뽑아 토론하였다.

이 워크샵의 특징할 것은 각 주제별로 나왔던 세대별 패널토의로 이는 새로운 시도였다.

여언의 산하단체들간의 전체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라 더욱 뜻깊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작년에 성남지역대표로 활동하시던 **곽삼화씨**가 11월 12일(토) 성남 둔전교회에서 1시 30분 화촉을 밝혔습니다.

- 11월 27일 **김명숙씨**(개나리동산, 동부지역대표)가 안성 영빈예식장에서 2시에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두분의 행복한 새생활을 기대하며, 지탁연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합회 일지

- 11/ 7 어머니 큰잔치 평가모임
- 8 조직발전을 위한 각 집 대표자 회의(지방)
- 10 확대 조특위 회의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 1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
- 16 여언 실무자 회의
11월 편집회의
- 17 확대조특위 회의
- 20 서울경인지역 자활대표자 11월 정기회의
- 22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회의
여성민우회 주최 직장탁아 실험포지움(최회장 토론자로 참석)
- 23 여언 정사위
- 24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 25 전국 민간보육시설 협의회 준비위 회의
- 26 영아탁아교사 모임
- 29 지방아동분과회의
- 30 자활합숙준비위 모임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임, 수익사업, 물론교한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할 분을 기다립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한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본 회 소속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칫솔 판매 농촌탁아소 재정다변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예, 가격은 한셋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할 신입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전, 현직교사나 기타 소지식, 탁아활동에 관심있는 자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희망자는 연합회로 신청하세요. (담당 함미영)	<서경자활대표자회의> 12월 정기회의를 알려드립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전원참석을 기대합니다. 때: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동덕여대 안건: 전체합숙건, 차기주체 준비건, 현주체의 전망논의...
♥ 인형을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정성껏 모은 인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은 연락주세요. (지방 가능) 장정현(동국대학교 경영학과) 032)578-1275, 883-0997 호출 015-356-3861	백세주를 판매합니다 연합회 수익사업으로, 약제가 첨가된 건강민속주, 백세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께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판매가 : 17,000원(6병입)
◆ 유모차나 보행기를 금히 구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나 보행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새터어린이집(867-8608)이나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터어린이집 남미영	아동 가방과 출석부를 나눠드립니다. 과랑새교구에서 기증받았던 물품중 아동가방과 출석부가 남았습니다.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서는 연합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에서

* 반송되는 소식지가 간혹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소식지의 얼굴을 이쁘게 해주세요.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의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에서나 각종 행사를 이용해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어린이집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은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구독 : 이해영님, 김혜영님, 김영선님, 김의련님

1년 구독 : 한무리어린이집, 문혜옥님, 유복림님, 양옥승님, 교육훈련원장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문혜옥, 유복림, 교육훈련원장님께서는 발송주소 확인을 위해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는 온라인 입금 후 본 연합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주세요.

*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김일명님 20,000원

보내주신 관심에 더욱 활기찬 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새 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의 내용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애정을 부자할 신입 편집회원을 모집합니다.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의 전,현직 교사나 기타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이젠

거울잠을 자고 싶다

깨어날

새 봄을 위해

- 혜민

* 단풍이 내린 자리가

꽃자리 같더니

이내 거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보도 단장을 해보려 하니

이내 송년회가 기다립니다.

- 미양

* 미양이언니네 보일러가 빨리 제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올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야 할텐데...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0,000원 1년 구독 20,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무은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4년 11월 5일